

■ 양진석 해피니스CC 회장, 광주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건강한 나눔 경영·상생 실천”

1억원 이상 고액 기부로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이정권 DH글로벌 회장도 동참…기부문화 확산 앞장

양진석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회장(㈜호원·광남일보 회장)이 4일 1억원 이상 개인 고액 기부자 모임인 광주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며 지역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이날 가입식은 전남 나주 해피니스컨트리클럽에서 열렸으며, 양진석 회장을 비롯해 광주 신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광주 아너 소사이어티 197호 회원이 된 양 회장은 제17대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으로, 그간 나주교육진흥재단을 통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왔다.

특히 최근 3년간 매년 2000만원씩 총 6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하며 지속적인 사회공헌 의지를 보여왔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주민 후원, 소방관 자녀 장학금 지원, 골프장 인근 경로당과 마을회관 물품 기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이어가고 있다. 지

난해에는 독립운동가 최재형·계봉우 선생의 후손 5명과 중앙아시아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후손 카자흐스탄 중·고등학교 20여명을 해피니스컨트리클럽으로 초청해 환영 행사를 여는 등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사회공헌 활동도 펼쳤다.

양진석 아너 회원은 “지역에서 사업을 이어나가며 받아온 신뢰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싶었다”며 “이번 나눔이 지역 공동체에 작게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이정권 ㈜DH글로벌 회장도 광주 아너 소사이어티 198호 회원으로 함께 가입해 의미를 더했다. 이 회장은 광주경영자총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전북 부안군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근농인재 육성재단 장학금 기탁 등 기업 성과를 사회와 나누는 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북대학교에 발전기금 10억원을 기부했으며, 매년 1억원 규모의 장학금 지원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권 아너 회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



양진석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회장(㈜호원·광남일보 회장·왼쪽 세번째)이 4일 전남 나주 해피니스컨트리클럽에서 열린 광주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197호 회원 가입식에서 이정권 ㈜DH글로벌 회장(198호 회원·왼쪽 두번째), 구제길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임은 일회성 기부자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에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위한 의미 있는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구제길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은 “양진석 회장과 이정권 회장의 아너 소사이어티 동시 가입은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주는 나눔의 실천”이라며 “두 분의 참여가 건강한 기부문화 확산의 계기

가 되길 바란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나주시 다도면에 위치한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은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즐겨 찾는 레저·문화 기반 골프장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은 물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대표 상생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녹색에너지연구원 ‘대한민국 ESG 지속가능경영대상’ 대상

저탄소 경영 실천·지역사회 상생협력 등 ESG 선도 고평가

녹색에너지연구원(원장황규철)은 4일 (사)한국환경경영학회가 주관한 ‘2026 대한민국 ESG 지속가능경영대상’ 시상식에서 기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전 분야에서 지역사회와 연계된 실질적인 ESG 경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전남도 산하 6개 지자체 대상 태양광(6330kW)·태양열·지열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보급, 산업단지 입주기업 맞춤형 ESG 경영 컨설팅 및 목포시 기후미래 청년포럼 운영, 지역 인

재 육성을 위한 누적 장학금 7억3000만원 기탁,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 획득과 전 직원 청렴 교육 이수율 100% 달성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장애인 체육선수 채용과 지역 일자리 박람회 연계를 통한 사회적 약자 지원, 인권·청렴 위반 건수 ‘0건’ 유지, 부패방지 시책평가 포상금 전액 기부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투명 경영과 사회적 책임 실천이 우수 사례로 꼽혔다.

황규철 녹색에너지연구원장은 “이번 대상 수상은 단발적인 성과가 아닌 ESG



녹색에너지연구원은 4일 (사)한국환경경영학회가 주관한 ‘2026 대한민국 ESG 지속가능경영대상’ 시상식에서 기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경영을 기관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 전 임직원이 함께 노력해 온 결과”며 “앞으로도 저탄소 경영과 지역사회 상생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ESG 경영 모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는 4일 광주보호관찰소에서 노정규 광주보호관찰위원회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원호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자에 온정 전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한 자립 기원”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는 4일 광주보호관찰소에서 노정규 광주보호관찰위원회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원호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은 설 명절을 앞두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명절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치세트와 생활용품으로 구성된 선물(650만원 상당)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노정규 광주보호관찰위원회회장은

“명절을 앞두고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성수 광주보호관찰소장은 “이번 지원이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재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5·18 가두방송 전옥주씨

‘2월의 유공자’ 선정

국립5·18민주묘지 관리사무소는 2월의 5·18민주유공자로 고전옥주씨(본명 전춘심·사진)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전씨는 1980년 5월19일 광주 친척집에 머물다 신군부의 만행을 목격하고 시위대에 합류했다.

이후에는 시민들의 민주화운동 참여를 호소하는 가두방송을 하며 5·18민주화운동 확산에 기여했다.

그는 간첩 혐의로 붙잡혀 고초를 겪다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81년 4월 사면됐다.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을 겪어온 전씨는 지난 2021년 2월16일 숨졌다.

전씨의 일대기는 영화 ‘화려한 휴가’에서 배우 이요원이 연기한 백역 ‘박신애’에 반영됐다.

전씨의 묘소는 국립5·18민주묘지 제2묘역 1-114번에 조성됐다.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관계자는 “국립5·18민주묘역을 추앙과 현충의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온 국민이 함께 가꾸는 아름다운 민주성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대동문화재단 운영이사회 제7대 이용범 이사장 취임

“두려움 앞섰지만 문화발전에 앞장서볼 계획”

사단법인 대동문화재단(대표 조상열) 운영이사회는 3일 오후 6시 광주 힐리데 이인호텔 별관 대연회장에서 이용범 제7대 운영이사장 취임식을 가졌다. 새로 취임한 이용범 운영이사장은 ㈜포스코와 ㈜유토닉스, ㈜하이텍산업개발의 대표이사다.

광주시파크골프협회장과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장과 대동문화재단운영이사회 부이사장, 대동문화재단 설립 3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 대동문화재단 대상 운영위원장을 맡아 왕성한 메세나 활동과 활발한 사회활동은 물론, 문화예술진흥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여왔다. 이사장의 임기는 2년이다.

이날 취임식에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민형배 국회의원, 이병훈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임택 광주동구청장, 김병래 광주남구청장, 구복규 화순군수, 허정 대한적십자사 전 광주전남 회장, 박승현, 김기수 대표 등 대동문화재단 운영이사회 역대 이사장들과 운영이사, 일반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취임식은 국악인 김산옥 씨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같은 테이블에 앉은 회원끼리 서로 간 인사를 시작으로 임명과 취임사 공로패 증정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제6대 김성후 이사장과 김용호 운영이사가 문화발전에 지대한 공을 평가받아 광주시장 표창장을 수여 받았다. 신규 운영이사 60여 명의 위촉장 전달식과 대동메세나골프회장, 청정년위원장, 사무총장 등 대동문화재단 운영이사회 신임 임원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용범 운영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처음에 이사장직 제안을 받고 과연 이 큰일을 해낼 수 있을지 두려움도 있었지만 역대 이사장님들의 뜻을 받들어 정말 의미 있고 값어치 있는 문화발전에 앞장 서볼 계획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성후 이미 이사장은 이임사에서 “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단체 대동문화재단에서 문화메세나 운동에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이 너무도 행복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관심과 참여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기꺼이 해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상열 대표이사는 “대동문화재단은 1995년 설립 이후 30년 동안 전통문화의



이용범 이사장

발전을 위해 매진해온 국내 대표적인 민간단체이다. 재단은 운영이사회의 지원에 힘입어 전통문화지킴이로써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 재단이 이처럼 탄탄한 기반을 다진 것도 그동안 여러 훌륭한 이사장님들을 모셨었기 때문이며 제6대 이사장으로 임기를 마치신 김성후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면서 “신임 이용범 이사장님은 지역 사회 전반에 적극적인 참여와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훌륭한 분이기에 기대하는 바도 크다. 대동문화재단의 제7대 이사장직을 맡아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문화 저변 확대…시민 문화향유 기회 증진

광주비엔날레·지역문화교류재단 업무협약 체결

(재)광주비엔날레는 지역문화교류재단(이사장 노경수)과 광주 지역문화의 저변 확대와 시민 문화향유 기회 증진을 위해 협력에 나섰다.

지역문화교류재단은 (재)광주비엔날레와 지난 3일 광주 지역문화의 확산과 시민 참여형 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시민 도슨트 양성 프로그램의 연계 및 협력 △지역 문화예술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및 정보 공유 △‘문화도시 광주’ 가치 확산을 위한 각종 시민문화사업의 상호 지원 △기타 양 기관의 발전과 상호 증진에 필요한 사항 협력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지역문화교류재단의 시민 기반 문화 활동과 광주비엔날레의 국제적 네트워크가 결합된 사례로, 지역성과 세계성을 동시에 확장하는 민관 협력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서 지역문화교류재단은 광주비엔날레와 협력해 지난 1월 시민 도슨트 양성과정 운영하며 시민 참여형 문화교육의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노경수 지역문화교류재단 이사장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지지와 참여에 비엔날레의 국제적 위상이 더해져, 광주 시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플랫폼이 되도록 상호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